

### 국무원 판공청 일련의 출산지 지 조치 발표

국무원 판공청은 일련 (출산지 지 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해 출산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인쇄발부했다.

조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전원회의,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한다. 인구 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를 인식, 적응, 인출하고 출산지 지 정책체계를 격려기제를 보완하며 전반 군체, 전체 생명주기가 포함된 인구봉사체계를 건전히 한다. 출산, 양육, 교육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전사회적으로 출산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훌륭한 분위기를 구축한다.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조치는 4가지 면의 출산지 지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출산 서비스 지지를 강화한다. 출산보험 보장 기능을 증강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취업일군, 농민공, 새 취업형태 인원을 출산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지도한다.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돌봄휴가, 육아휴가 등 출산휴가를 락착하도록 보장한다. 출산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지방에서 정책 점목을 잘하고 적극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생식건강봉사를 강화하고 적합한 분만진통 및 보조생식 기술을 의료보험 취급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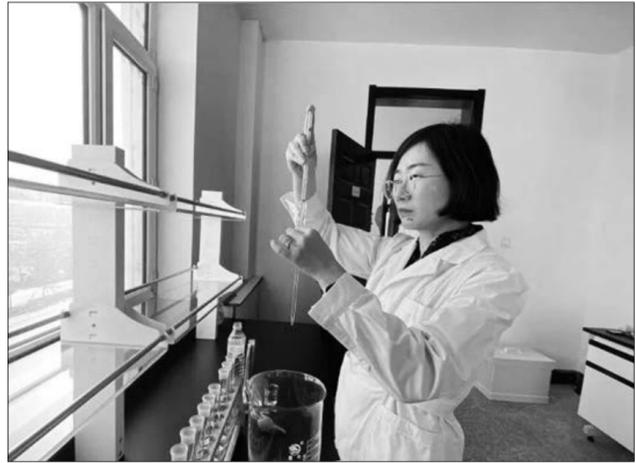
둘째, 육아봉사체계를 건설을 강화한다. 아동의료봉사 수준을 향상시

키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용 약품을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취급 범위에 제때에 포함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의 공급을 증가하고 위탁보육종합봉사중심의 지구급시(地市级) 전면 보급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며 사회구역 상감식 위탁보육을 힘써 발전시킨다. 고공단위 탁아소 운영, 가정위탁보육소 등 여러가지 모식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탁보육 일체화 봉사를 힘써 발전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 지지정책을 보완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매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종업원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고공단위가 실제와 결부해 연성 출퇴근, 재택근무 등 방식을 취하여 가정우호형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셋째,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지 조치를 강화한다. 량질의 교육자원을 확대하고 중소학교가 방과후 봉사와 사회실천항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지에서 다자녀 동일 학교 취학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출벌하는 것을 격려한다. 주택지 지정책을 강화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매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종업원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고공단위가 실제와 결부해 연성 출퇴근, 재택근무 등 방식을 취하여 가정우호형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출산우호형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한다. 신형의 결혼출산문화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결혼관, 출산관, 가정관을 힘써 창도한다. 사회적인 선전, 창도를 강화하고 인구 고품질 발전 선전교육 전문행동을 실시한다. 인구국정국책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중소학교, 대학, 전문대학 교육에 융합시킨다. /인민넷-조문판

## 박염, 가장 아름다운 기층환경보호인으로 선정



은 그 미래가 기대된다."고 박염은 설명했다.

박염은 환경검측소의 품질책임자로서 검측사업의 중요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검측소의 분석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검측 설비가 완벽하지 못한 등 현실에 직면하여 부소장 박염은 개인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완수하고 있는 동시에 총린(总麟), 음이온 계면활성제, 6가크롬(六价铬) 등 20여개의 분석 항목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샘플 채취를 마치고 돌아가면 즉시 샘플을 분석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명절과 휴식시간도 서슴없이 포기하면서 실험실에서 10 여시간씩 머리를 동여매고 일할 때가 다반사지만 박염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내지 않았다.

2023년 룡정시 생태환경 질량 상황과 변화 추세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박염은 매일, 매주, 매달 검측 수치를 총괄하여 정리, 연구, 분석을 진행했다. 년간 2만개가 넘는 검측 수치를 토대로 조사 료증, 자료 준비, 수치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해 <룡정시 생태환경 품질 보고서>를 완성했다. 32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공기, 산성비, 수질환경, 음향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추세적인 분석을 담았다. 그림과 문자를 결부하였기에 2023년 룡정시의 생태환경질 현황과 추세를 직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룡정시의 생태환경 관리에 중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박염이 작성한 <룡정시생태환경검측소 질량 수첩>, <룡정시생태환경검측소 절차 문건> 등 품질체제 문서는 전역의 모든 작업 절차를 엄격히 통제

하여 각종 검측 임무가 질서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확보했다. "수첩의 내용이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서 우리의 업무는 더욱 규칙이 있고 각종 조작이 더욱 규범화되었다."고 측량소 과원 정사요는 수첩의 내용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박염은 검측 수치와 품질에 많은 공을 들였고 다년간의 일선 검측 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기량을 닦았다. 10년을 하루같이 수원지, 호수와 저수지, 하천 단면 등 일상적인 검측 임무와 오염원 감독성 검측, 신소 검측, 위탁 검측 등 검측 임무를 참담하게 수행했다.

강추위나 무더위를 막론하고 검측소에 가면 늘 박염을 만날 수가 있다. 특히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 검측기기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하여 다년간 검측 일선에서 분투해온 가녀린 그녀의 체구에서도 가끔은 '녀장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비록 고달프지만 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래로 힘든 기색을 내지 않았으며 평범한 일터에서 환경보호인의 '철인의 지'를 보여주었다. 박염은 선후로 생태환경부 '3.5'인재 칭호, 2018년 길림성 환경통계 선진개인, 2019년 길림성 생태환경검측 전문기술인원시합 개인 2등상, 2023년 개인 3등상을 수상했다.

박염은 오늘날 생태환경검측 일선에서 청춘과 열혈로 룡정시의 푸른 물과 푸른 하늘을 수호하고 있으며 착실하게 헌신적으로 세시대 환경보호인의 일터를 드팀없이 지켜나가고 있다.

/김영희기자

### 민족단결의 씨앗을 군중들의 마음속에



###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당지부, 길림성문화박물관당지부 민족단결주제활동 전개

6일,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당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맞아 민족단결주제활동을 강화하며 민족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증강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길림성문화박물관당지부와 함께 '민족단결한가주, 한마음으로 중국꿈 함께 구축하자'를 주제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백산방대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녑봉련과 길림성문화박물관당지부 부서기 호위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당지부 서기이며 관장인 리상호, 부관장 전해옥, 최예란 및 20여명의 당부사업일군들과 동행하여 길림성문화박물관을 참관했다.

녀봉련은 일행에 백산방대그룹에서 시중 견지하고 있는 4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첫째, 시중 당의령도를 견지하고 고품질 당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것을 견지하며 "중심을 둘러싸고 당건설을 틀어쥐고 당건설을 잘 틀어쥐는 것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시중 법을 준수하고 신용을 견지하며 '성실신용, 도덕경영'의 발전 리념을 고양, 전승하여 '34년

간 가짜상품이 하나도 없고 34년간 신고가 한번도 없'는 경영업적을 기록했다. 셋째, 시중 문화협업을 견지하고 당건설문화, 조화문화, 신용문화, 감사문화 등 '네가지 문화'를 힘써 건설하고 있다. 넷째, 시중 사회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견지하며 애국운동을 견지하고 자원봉사와 향촌교육사업의 발전을 조력하는 등 사회공익활동을 견지하고 있다.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당지부 서기이며 관장인 리상호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삼고 당조직과 당원 대오의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며 당건설로 공동 건설을 인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자각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 지시 정신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 길림성문화박물관 당지부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당지부는 <당건설 공동 건설 협의서>를 체결했다.

료해에 따르면 길림성문화박물관 당지부는 시중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원에 대한 사상정치 인도를 잘 틀어쥐고 동시에 민족단결진보교양을 통해 민족단결의 씨앗을 당원간부와 군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는 등 '민족단결한가주'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있다.

/정현관기자



### '작은 식당'으로 민족 교류의 플랫폼 구축

#### 연길시 북산가두 단화사회구역 민선식당 개업

최근, 연길시 북산가두 단화사회구역 민선식당이 북리북권공익금의 지원하에 정식으로 개업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복지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 민선식당은 오건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식사, 의사(议事), 조정, 독서, 휴식 등 다기능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봉사 장소이다. 식당에는 40개의 식사 자리가 설치되어 있다. 제 3자를 도입하여 '공익성 봉사'를 위주로 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매일 정오에 부패를 제공하는데 가격이 비교적 싸다. 60세 이상 로인은 1인당 10원, 60세 이하 주민은 1인당 15원이며 연변 1종과 연변 2종, 연길시 1종 등 학교 학생들은 학생증을 소지하면 1인당 12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관할구역 여러 민족 주민의 식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개업 당일 현장은 매우 시끌벅적했다. 주민들은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즐겼다. 관할구역 주민 류슈 아주머니는 "집앞에 식당이 생겼어요. 식당에는 고기반찬도 있고 채소반찬도 풍부해요. 건강메뉴인 데다 맛 또한 좋아요. 우리 로인들은 더 이상 식사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한편 이 민선식당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식사 봉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주민들의 감정 교류와 융합

의 플랫폼으로 되어 조화로운 사회구역 건설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

/정현관기자

### 75년간 주민 생활수준 크게 향상

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변화는 총 가계지출 대비 식료품 비용 지출을 측정하는 엔겔계수로 반영된다. 우리 나라의 엔겔계수는 1978년의 63.9%에서 지난해의 29.8%로 34.1%포인트 대폭 감소했다.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개혁개방 이후 주택제도가 직장에서 주택을 지급하던 복리주택 분배에서 시장화로 전환되면서 도시 농촌 주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거주 환경도 넓어졌다.

'제 1차 인구통계' 결과 2020년 인당 주택면적은 도시 거주자가 38.6

평방미터, 농촌 거주자가 46.8평방미터로 1978년에 비해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도시 사회구역의 99.8%가 고속도로를, 농촌 사회구역의 99.9%가 케이블 TV 신호를 리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의 평균수명 역시 길어져 지난해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초기에 비해 43.6세 늘었다. 의료 및 교육 봉사도 개선됐다. 지난해 기준 96.1%의 자연촌에 위생소가 설치됐으며 92.4%의 자연촌에 유치원이나 취학준비반인 학전반이 구비됐다.

한편 도시 거주자의 소비력이 향상되고 상품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도시 소비 시장이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는 1953년부터 2023년까지 년평균 12.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도시 소비재 소매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2년의 45.4%에서 지난해에는 86.4%로 늘었다.

2020년까지 9,899만명의 농촌인구가 빈곤해탈을 실현했으며 832개 빈곤현이 모두 공식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신혜넷